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지각내용에 대한 개념주의 비판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최 지 민

# 지각내용에 대한 개념주의 비판

지도교수 강진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최지민

최지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위원장 김기현 (인)

부위원장 강진호 (인)

위원 김상환 (인)

## 국문초록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주체의 믿음은 지각경험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때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 사이의 정당화 관계는 각 심적 상태에 귀속된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개념주의는 특히 지각주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통해 지각적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는 주체의 합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념주의는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 지각경험의 내용이 모두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주의의 여러 입장 중에서도 맥도웰과 브루어의 개념 규정에 근거한 개념주의(이하 ‘개념주의’로 표기)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맥도웰의 저술들을 중심 문헌으로 삼고, 맥도웰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한 방식으로 전개한 브루어의 저술들은 보충적으로 다룰 것이다.

에반스가 경험은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주의는 에반스의 개념 규정을 상당 부분 수용한다. 에반스에 따르면, 개념은 일종의 사고능력으로서 심적 상태의 구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조물이다. 이 부분까지는 개념주의 역시 개념에 대한 에반스의 규정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에반스는 개념이 어떤 심적 상태에 내용을 귀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처하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습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념은 한 주체가 일단 습득하면 맥락이 바뀌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념주의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에반스와 개념에 대한 규정을 달리한다. 개념주의는 명시화될 수 있는 모든 언어표현은 개념을 의미로 가지므로 지시사도 개념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시사 개념은 그 개념을 포함한 명제를 내용으로 갖는 지각경험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습득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지시체가 바뀔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주의의 개념 규정이 상태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측면과 내용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개념주의에 대한 상태해석은 주체가 자신의 지각 상태를 특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지각 상태가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내용 해석은 개별 지각주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심적 상태를 개념적으로 특성화할 방법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그 심적 상태는 개념적인 것으로 본다.

한편, 지각적 믿음을 경험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념주의는 황량한 자연주의와 소여의 신화, 정합론을 피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황량한 자연주의는 경험의 주관적인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여의 신화는 경험을 합리성의 영역 안에서 다루는 데에 실패한다. 정합론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어떠한 제약도 없이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주의가 이러한 세 가지 함정을 피하면서 주체의 합리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를 따라야 함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개념주의에 따라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를 설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다. 하나는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구분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당화자와 정당화되는 대상이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개념주의 주장 전반에서 전제되었던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 간의 정당화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개념주의가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가 개념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변을 통해 맥도웰과 브루어의 개념 규정에 따른 개념주의에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요어:** 지각, (지각)경험, 믿음, 개념, 정당화, 심성 내용, 맥도웰, 브루어, 에반스

**학 번:** 2012-20050

# 목차

서론 .....	1
<b>1. 심리학에서의 개념과 철학에서의 개념 비교.....</b>	<b>8</b>
1.1 비교 1: 개념의 특성.....	8
1.2 비교 2: 개념과 개념에 기대되는 역할.....	15
<b>2. 개념의 규정과 맥도웰/브루어의 개념주의에 대한 해석.....</b>	<b>20</b>
2.1 개념의 특징: 에반스의 개념과 개념주의자들의 개념 .....	20
2.2 경험내용의 역할: 지각적 믿음 내용의 정당화.....	35
<b>3. 개념주의에 대한 기존 비판.....</b>	<b>48</b>
3.1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지각경험의 개념성에 대한 비판.....	48
3.2 개념의 재인가능성에 대한 비판.....	51
3.3 지각적 개념의 의미 결정에 대한 비판.....	53
<b>4. 지각적 믿음에 대한 개념주의적 정당화의 두 가지 문제점 .....</b>	<b>58</b>
4.1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의 구분 불가능성.....	58
4.2 가능한 재반박과 답변: ‘seeing’과 ‘seeing as O’의 구분 및 비-진리적 지각사례.....	62
4.3 지각적 믿음에 대한 내재주의적 정당화와 내용 외재주의 간의 모순.....	64
4.4 가능한 재반박과 답변: 정당화에 대한 투명성의 거부.....	68
<b>결론 .....</b>	<b>72</b>
<b>참고문헌 .....</b>	<b>74</b>
<b>Abstract .....</b>	<b>79</b>

## 서론

우리는 대개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경험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최소경험주의(minimal empiricism) 논제는 일반적으로 큰 반론 없이 받아들여진다. 지각경험에 대한 개념주의(conceptualism)는 이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을 근거지우기 위해서 지각경험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지각경험을 비롯한 심적 상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다. 예컨대 신경과학에서는 경험, 믿음 등의 인지과정이 일어날 때 신경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지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체의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주기에 부적절하다. 가령 철수가 운동 후 가방에 들어있던 물병을 꺼냈다고 하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철수의 경험을 시신경의 자극과 시신경과 뇌 신경 사이의 자극 전달로, 물병을 꺼내는 철수의 행위를 신체 근육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철수가 왜 물병을 꺼냈는지를 합리화시켜주지는 못한다. 이 상황에서 철수가 왜 물병을 꺼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실천적 삼단 논법이다:

- (1) 철수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 (2) 철수는 가방에 있는 물병을 꺼내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믿는다.
- (3) ∴ 철수는 가방에 있는 물병을 꺼낸다.

이 삼단논법에서 (1)은 철수의 욕구(desire), (2)는 철수의 믿음(belief)에,



(3)은 철수의 행위(action)에 해당한다. 이 논법은 철수의 심적 상태를 각각 욕구와 믿음으로 식별하고, 각 심적 상태에 욕구 내용(content), 믿음 내용을 귀속시켜 철수가 자신의 물병을 왜 가방에서 꺼냈는지 합리화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이란 생각이나 믿음, 욕구 등의 심리 상태가 갖는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 내용은 맞거나(correct) 그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며, 믿음이나 생각은 그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나 틀린 것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지향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할 때뿐만 아니라 주체의 합리적인 인지과정 — 예컨대 추론 —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체의 심적 상태에 내용을 귀속시킬 수 있다.

개념주의는 주체가 어떻게 세계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은 믿음의 합리적인 이유이므로, 우리는 경험에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귀속시켜야 경험과 믿음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경험과 믿음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는 모종의 추론 관계로 밝혀질 수 있는데, 이런 추론관계는 경험에 내용이 귀속되어야만 분명하게 결정될 수 있다.

경험의 내용은 일단 주체가 의식하고 반성할 수 있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믿음의 내용 역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각경험의 내용에 대해 믿음과 동일한 유형의 내용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구분된다. 믿음과 경험이 동일한 유형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지각경험과 믿음에 모두 비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과 믿음이 서로 다른 유형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은 대개 경험에 대해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믿음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킨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각경험에 대한 개념주의는 지각경험과 믿음이 모두 개념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의의 심성 내용(mental content)이 개념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구조화된 명제(proposition)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명제의 진리치는 명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개념들의 의미값으로부터 진리함수적으로 결정된다. 명제적인 심성 내용은 또한 다른 명제적인 내용들과 함께 추론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각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는 경험과 믿음은 모두 명제적인 내용을 가지며, 이 내용들은 서로 추론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으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주의가 경험에 대해 개진하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맥락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먼저 지각경험 내용에 대한 비개념주의와의 대비를 통해서이다. 지각경험에 대한 비개념주의는 에반스에서 출발한다. 에반스는 경험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믿음에는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킨다. (Evans 1982: 227) 그리고 지각적 믿음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을 비개념적 내용을 가진 지각 상태에서부터 개념적 내용을 가진 믿음 상태로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과정으로 이해한다. 에반스와 달리 맥도웰은 지각 상태의 내용이 믿음 상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개념적 내용밖에 없으며, 판단 과정은 개념적 내용을 승인(endorse)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McDowell 1994) 비개념적인 내용의 정체와 개념화 과정이 불분명하며, 특히 주체 입장에서는 비개념적 내용과 개념적 내용 간의 연결관계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요 근거이다. 이러한 맥도웰의 입장은 브루어에 의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Brewer 1999; 2005)

두 번째로, 개념주의는 경험의 양면적인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식할 수 있는 수준(personal level)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경험은 외부 세계의 사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야기되므로 물리적인 인과법칙을 따른다. 경험이 드러내는 내용이 외부 세계의 사물 및 사건과 맺는 관계 역시 외부 세계와 경험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험은 주체의 합리적인 판단과정 또는 믿음의 정당화(justification)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의 내용은 주체가 의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개념주의는 경험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념을 규정하여 지각경험에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키고자 한다.

개념주의가 주목하는 경험의 두 가지 측면은 맥도웰이 비판하는 “황량한 자연주의(bald naturalism)”, 정합론(coherentism), “소여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와의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도 있다. 황량한 자연주의는 경험을 오로지 자연과학적인 설명, 즉 경험과학의 도움을 받아 인과적인 설명을 통해 경험을 완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경험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험이 갖는 주관적인 측면은 잘 해명하지 못한다.

정합론의 경우, 믿음 내용들 간의 정합성만 만족되면 그 믿음은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의 정당화에 있어서 경험의 역할은 사라지고 경험에게는 단지 인과적 원인으로서의 역할만 남는다. 그런데 경험은 주체와 외부 세계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이므로, 정합론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들조차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귀결은 경험의 주관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정합론의 주장과 달리 경험에도 정당화자(justifier)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는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경험이 믿음의 근거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여의 신화에 빠질 수 있다. 소여의 신화는 경험이 주체가 추론 과정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내용을 갖지 않는데도 “경험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근거”(McDowell 1994: 19)라고 주장하는 오류에 빠진다. 그로 인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감각자극들조차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자극들은 넓은 의미에서 경험으로 묶을 수는 있어도 주체가 자신의 합리성을 사용하여 판단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믿음, 경험 등 다른 심성 내용과 어떤 추론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정당화에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추론에 사용하기 용이한 개념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설명하는 입장으로서는 개념주의를 살펴보자. 믿음의 정당화에 대한 이론은 크게 정당화에 대한 외재주의(externalism)와 내재주의(internalism)로 나뉠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개념주의의 경우 외재주의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개념주의는 경험이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 수행하는 정당화보다도 인식주체의 관점에서 인식주체의 합리성이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믿음을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 까닭에 개념주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경험에 의한 지각적 믿음의 내재주의적 정당화를 다룬다.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는 다시 토대론(foundationalism)과 정합론으로 나눌 수 있다. 토대론에 따르면 다른 믿음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기초적인 믿음이 있다. 반대로 정합론에 따르면 모든 믿음에는 그 믿음과 정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믿음을 형성하는 다른 믿음들이 있다. 개념주의의 경우, 경험을 정당화자로 본다는 점에서 토대론에 가깝다. 다만 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개념들은 주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들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었을 수 있다. 개념적인 경험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적 능력이 믿음 내용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도 하므로, 경험과 믿음은 개념적인 능력을 통해 서로 의존하며, 이에 따라 개념주의는 고전적인 토대론은 아니라는 것이 맥도웰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대론과 정합론을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화자의 유무만으로 구분한다면, 개념주의는 토대론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요컨대, 개념주의에 따르면 경험에 귀속되는 개념적인 내용은 외부 세계에 의해 인과적으로 야기되지만 동시에 주체의 합리적인 판단과정 및 지각적 믿음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주의는 토대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맥도웰과 브루어 식의 개념주의가 이상에서 약술한 맥락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한 가지 이유는 개념주의를 따를 경우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서 지각적 믿음은 지각적 경험으로 정당화된다는 경험론의 기본적인 논제를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개념주의가 따르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가 과연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이 모든 개념주의적

입장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장에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 특징들을 크게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개념과 철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비교하며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장부터는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 중에서도 에반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맥도웰과 브루어의 개념을 다루며, 맥도웰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되 브루어의 주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개념주의를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맥도웰과 브루어 등의 개념 규정에 따른 개념주의를 비판하는 것일 뿐, 범주(category)나 심상(mental image)<sup>1</sup> 등 개념에 대한 다른 정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개념주의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개념을 일종의 심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경험을 분석하는 입장에 우호적이다. 심상을 통해 사고나 판단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지각심리학 안에서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며, 철학 안에서는 프린츠가 제안한 바 있다. (Prinz 2004)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깊이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

<sup>1</sup> 심상은 명제가 아니다. 그 때문에 심상은 진리치를 갖지 않는다. 대신 심상에 대해서는 올바르게나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주체가 세계에 대한 심상을 갖거나 판단과정에 심상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1. 심리학에서의 개념과 철학에서의 개념 비교

개념주의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심리학에서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심리학과 철학의 규정 및 관련 논의들을 크게 개념의 특성과 개념의 역할,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심리학과 철학의 논의들을 각 절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 1.1 심리학에서의 개념과 철학에서의 개념 비교 1: 개념의 특성

먼저 개념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비교해보자. 심리학에서 개념은 모든 인지활동에 사용되는 지식표상의 기본단위이다. 개념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아니면 실재하는 것이든 상상하는 것이든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정모 외 258) 개념은 대개 특정한 경험 이후에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주체가 습득한 후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지과정이 일어날 때 활성화된다.<sup>2</sup> 개념이 구체적으로

---

<sup>2</sup> 심리학에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범주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때 문인지 개념과 범주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므로, 그 전에 개념과 범주의 구분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범주란 “사람들이 동일 유목에 함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물들의 유목”을 지칭한다. (이정모 외 257-258) 예를 들어, 우리는 미술관 앞을 밤마다 찾아오는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르고,

무엇인가에 관한 지각심리학의 이론들은 크게 고전적 견해와 유사성 기반 견해, 설명기반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개념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정의주의(definitionalism)라고도 불린다. 이 입장에 따르면, 특정한 정의속성(definitional attributes)들이 있어서, 각각의 속성들은 특정 개별 사례가 특정 개념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이 속성들 전체는 그 개념에 해당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개념은 이러한 정의속성들의 집합으로 표상된다. 가령 ‘고양이’의 개념은 고양이가 갖는 정의속성들의 목록으로 규정된다. 또 개념들 혹은 범주들 간의 경계는 정의속성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한 범주에 속한 사례들은 모두 특정한 정의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례를 더 좋거나 나쁜 예로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개념을 정의하는 속성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념들 혹은 범주들 간의 경계 역시 모호할 수 있다. 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 간에도 좋은 사례[더 전형적인 사례]와 나쁜 사례[덜 전형적인 사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유사성 기반(similarity-based) 견해는 다시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 본보기 이론(exemplar theory), 스키마 이론(schema/script theor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사물들이 서로 유사하며, 또 어떤 사물의 범주화는 그 사물과 심적 표상[개념] 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 이론은 개념에 해당하는 심적 표상을 원형, 본보기, 스키마 등으로

---

만화 “가필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동물도 ‘고양이’라고 부른다. 이는 매일 밤 미술관 앞에 있는 사물과 만화에 등장하는 사물이 어떤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공유되는 속성들에 대한 표상을 ‘고양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사물들의 집합을 ‘고양이’ 범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원형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추상적 집합체”이다. (이정모 외 265) 예를 들어, 가족 유사적인 경험 사례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개별 사례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속성은 없을 수도 있다. 원형은 이러한 사례들이 가진 속성들의 평균을 구해 추상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형이 나타내는 속성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사례는 없을 수도 있다. 원형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 집합의 사례들을 경험한 후 그 사례들이 가진 평균적 특징을 추상화하는데, 이렇게 얻어진 추상화된 표상이 개념이다. 이러한 원형 이론에서는 개념들, 범주들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경계는 사람마다, 또 하나의 개인에 대해서도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원형에 더 가까운 전형적인 사례로부터 덜 전형적인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유사성에 기반한 또 다른 개념 모형은 본보기 모형이다. 본보기는 주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중 범주 판단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특정 사례들에 대한 심적 표상들이다. 원형 이론에 따른 범주화가 개별 사례들의 평균인 하나의 원형과 새로 접한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본보기 이론에 따른 범주화는 과거에 경험한 개별 사례에 대한 표상과 새로운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어떤 사례들이 본보기 사례들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과거에 경험한 사례들 모두를 본보기 사례로 받아들일 경우 인지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는 어떤 사례가 본보기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입장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성 기반 견해 이외에도 설명기반(explanation-based)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념의 정보에는 그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관련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또는 그 개념의 사례가 다른 대상들과 관련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개념 속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적·인과적·설명적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정모 외 271)

이러한 입장을 이론-이론(theory-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개념적 지식(어휘지식 dictionary knowledge)과 일반지식(백과사전적 지식 encyclopedic knowledge)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개념에 대한 어휘지식, 즉 ‘애완동물’이라는 어휘의 의미에 관한 지식과 애완동물에 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또 개념을 사용한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실 “설명”, “이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역시 합의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 개념에 대한 고전적 견해, 유사성 기반 견해, 설명기반 견해 등은 모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세 입장 모두 개념을 일종의 심적 표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입장은 단지 이 심적 표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만 다르다.

철학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심적 표상, 특정한 능력, 프레게적 뜻(Sinn)의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념을 심적 표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자. 이러한 입장은 마음에 대한 표상이론(the Representational Theory of the Mind)으로서, 영문 약자를 따 ‘RT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믿음, 욕구와 같은 명제 태도의 내용들은 심적 표상이다. 그리고 이 표상 복합체의 인과적, 기능적 역할에 따라 이 명제 태도가 믿음인지, 욕구인지, 혹은 또 다른 명제 태도인지가 결정된다. RTM에 따르면 믿음, 욕구 등의 인지과정, 사고과정은 이러한 내적인 표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Margolis &

Laurence 2-4) 이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내적 표상들이 바로 개념이다. 개념이 심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심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택하는 철학자들은 심리학, 인지과학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표상 이론 중에서도 이 개념이 과연 어떤 종류의 표상인지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시 갈라질 수 있다. 먼저, 포더(Fodor) 등에 따르면 개념에 해당하는 심적 표상은 단어와 같은(word-like) 심적 표상이다. 포더는 심적 표상 체계가 자연 언어와 유사한 통사론적 구조와 의미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심적 표상 체계를 언어 체계에 유비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사고언어이론[가설](the language of thought theory[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Fodor 1987) 표상 체계를 언어 체계에 유비하면 표상들의 구조적 성격을 보다 잘 해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사례에서 고양이를 본 관찰자가 <미술관 앞에 뚱뚱한 고양이가 앉아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자. 이 관찰자의 믿음 내용은 미술관, 고양이, 뚱뚱하다 등 단어와 닮은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표상들이 특정한 통사론적 규칙에 따라 배열됨으로써 하나의 의미를 합성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념에 해당하는 표상을 일종의 심상으로 보려는 입장이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의 기원은 로크, 흄 등의 근대 경험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심상주의(imagism)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개념은 그림과 같은(picture-like) 존재자이다. (Prinz 139, 25-27; Margolis & Laurence 3) 이와 같은 개념은 의식적인 지각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그러나 개념을 일종의 심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전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단 도덕적 가치, 수, 도형처럼 지각과 관련이

없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에 상응하는 심상을 찾기가 어렵다. 또 사고언어이론의 경우 앞서 고양이에 대한 믿음의 사례처럼 일종의 통사적 규칙에 따라 기초적인 표상을 결합하여 더 복잡한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개념의 합성성(compositionality)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심상주의의 경우 어떤 규칙에 따라 심상들을 결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사고(thought) 내용이 형성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에 프린츠 등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심적 회전(mental rotation), 심상주사(imagery scanning) 등에 관한 실험결과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한 실험에서는 설계에 따라 피험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잘 인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점[출발점]에서부터 다른 지점[도착점]까지의 경로를 생각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런데 주체가 경로를 생각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주체가 사고 과정에서 거리관계를 보존하는 심상을 사용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정모 외 288-289)

개념을 프레게적 뜻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프레게에 따르면 뜻은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의 대상이자 지시체의 제시 방식(mode of presentation), 그리고 언어표현의 의미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예를 들어 ‘이도’와 ‘세종대왕’은 동일한 지시체를 갖지만, <이도가 한글을 창제했다>는 믿지 않으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믿고 있는 주체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이 주체는 ‘이도’와 ‘세종대왕’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표현이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뜻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될 수 있으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사적인(private) 관념(idea)과 다르며, 물리적 대상과도 다른 제3의

추상적 대상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프레게적 뜻으로 보는 것은 개념을 심적 상태나 내적 표상과 달리 공유될 수 있는 특수한 추상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표상 이론과 달리 개념을 인지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출발점은 대개 더밋에게서 발견된다. (Dummett 1993)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컨대 고양이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고양이를 고양이가 아닌 다른 사물들로부터 식별하고 이에 대한 특정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프레게의 뜻을 능력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에 도달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념을 능력으로 보면서 개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프레게의 뜻이 수행하는 역할을 받아들여 개념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개념에 대한 능력 견해와 프레게적 뜻 견해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뒤에서 소개할 에반스 같은 경우 프레게적 뜻을 “지시체를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그 점에서 에반스는 프레게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개념을 일종의 능력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또 피콕은 개념을 그 개념의 소유조건(possession condition)으로 개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콕은 더밋에게 있어서 의미에 대한 이론이 이해에 대한 이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론도 개념의 소유에 대한 이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Peacocke 1992: 5) 그래서 어떤 개념의 본성은 개념을 습득한(master) 주체가 그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명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개념적 내용은 믿음, 판단 등의 명제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념은 이처럼 주체의 사고 능력으로서 주체의 합리적 사고 과정에 참여한다. (Peacocke 2001: 169)

이러한 점에서 피콕은 개념을 일종의 능력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sup>3</sup>

정리하면, 개념을 일종의 심적 표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철학과 심리학 양 쪽에서 발견된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일단 개념이 심적 표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심적 표상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개념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학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개념을 심적 표상이 아니라 능력, 프레게적 뜻 등 다른 존재자로 이해하기도 한다.

## 1.2 철학에서의 개념과 심리학에서의 개념 비교 2:

### 개념 및 개념에 기대되는 역할

개념은 심리학과 철학에서 모두 (특정한 수준 이상의) 지적 사고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개념 이론에 기대하는 역할과 철학에서 개념 이론에 기대하는 역할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거칠게 정리하면, 심리학에서의 개념 이론은 개체의 인지과정 내에서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철학에서의 개념 이론 역시 개체의 인지과정을 해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다만 철학에서는 심리학에서보다 개념이 갖는 인식론적 역할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

<sup>3</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콕은 여전히 개념을 통해 대상이 제시(present)되며, 개념이 대상[지시체]과 주체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프레게의 뜻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Peacocke 1992: 23 2001: 244) 또 두 개념이 같거나 다를 필요충분조건은 두 프레게적 뜻이 같거나 다를 필요충분조건과 다르지 않다.

먼저 심리학에서의 개념에 관한 이론이 만족시켜야 할 개념의 역할들을 살펴보자. 외부 세계로부터 혹은 다른 어떤 요인으로부터 주체에게 자극이 주어지 인지과정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자. 이 때 개념이 수행하는 일차적인 기능은 입력된 자극을 개념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이다. 범주화는 개별 사례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례가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어떤 개념이 상위 개념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범주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고양이 사례를 보자. 주체가 어느 날 밤 미술관 앞에서 어떤 사물을 보았다. 주체는 이 사물이 <고양이> 개념에 해당하는 속성들 중 상당수 이상을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고양이 범주 내의 사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로부터 주체는 미술관 앞에 나타난 대상을 고양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만약 주체가 이 대상을 <고양이> 개념을 사용해 범주화하지 않았다면, 주체가 그날 밤 미술관 앞에서 본 것은 단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사물로만 이해되었을 것이다. 특정 상황에 나타난 임의의 동체에 대한 표상 역시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물을 <고양이> 개념을 이용해 범주화시켰을 때 주체는 고양이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경험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보다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할 수 있으며, 주어진 정보를 보다 높은 단계의 인지 처리 과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범주화 과정에서 주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에 해당하는 심적 표상과 주어진 자극 정보를 비교하는데, 이는 곧 주어진 경험에서 과거에 얻어진 패턴을 다시 확인하는[재인하는] 과정(pattern recognition)이므로, 개념은 패턴 재인 도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정도

외 259) 한편, 재인에 사용되는 과거에 얻어진 패턴은 과거의 경험이 범주화되고 체계화됨으로써 형성된 기억이다. 그러므로 개념은 기억 체계의 기초를 이루며 재인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개념의 또 다른 기능은 주어진 사물이나 사건을 더 잘 이해하거나 설명,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앞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주체가 밤에 미술관 앞에 머무르고 있는 대상을 고양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고양이에 관해 주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들이 주체의 의식에 활성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그 날 밤 미술관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체는 그 고양이가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다 큰 고양이가 주변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울고 있다면 발정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나 예측이 개별 사례에 대해서 반드시 적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에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주체가 어떤 행위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의도적 행위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왜 주체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즉 주체의 어떤 믿음 또는 판단이 그와 같은 행위결정을 내리게 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행위의 이유가 되는 믿음, 판단 등의 심적 상태를 우리는 그 심적 상태가 가진 심성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념은 이 심성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주체의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통해 범주화, 체계화된 지식은 필요에 따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은 한 주체가 의사소통의 상대방과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개념을 동일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낼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언제나 만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의사소통은 실패할 수도 있다.

철학에서도 개념은 대상들을 일정하게 분류하고, 또 경우에 따라 재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개념은 설명이나 예측, 추론처럼 보다 고등 수준의 인지과정에 사용될 수도 있다. 또 개념이 의사소통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요구되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학과 달리 철학에서는 개념적 내용을 믿음, 판단 등의 지향적 상태에 귀속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향적 내용의 정당화를 설명하는 문제까지 나아간다.<sup>4</sup> 그 과정에서 지각경험에도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개념은 어떤 본성을 가지며, 어떻게 다른 믿음의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맥도웰, 브루어 등은 지각경험이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된) 개념적 내용을 가져야만 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험 내용과 믿음 내용으로 이루어진 추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우리가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사고의 구성 요소들, 즉 개념들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

<sup>4</sup> 여기서 말하는 정당화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에 따른 정당화와 구분된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세계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작업이 결국 자연의 어떤 측면들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인식론은 자연과학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을 따른다면 정당화는 경험과학적인 설명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경험에 의해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해명하는 것과 경험으로부터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철학적 작업은 후자에 해당하는 심리학적 작업과 동일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연주의적 인식론과 달리 정당화와 인과적 설명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따르기로 한다.

수 있다. 인간의 사고가 가진 이와 같은 생산성(productivity)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합성성의 원리가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다시 이 합성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사고 또는 지향적 내용들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에반스의 일반성 제약(the Generality Constraint)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성 제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다뤄질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일단 일반성 제약이 사고 내용의 구조성을 드러낸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개념은 대개 사고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고의 내용은 그 내용을 이루는 개념들의 의미와 그 개념들의 결합 방식으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개념 이론은 사고의 구조성을 설명함으로써 사고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심리학과 철학에서의 개념 모두 주체의 인지과정 또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철학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심성 내용간의 정당화에 개입할 수 있을지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개념들의 합성성 역시 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sup>5</sup>

---

<sup>5</sup> 개념에 관한 이론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과 (비)의식적 ((sub)personal) 상태의 구분과의 연관성, 언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 두 논쟁은 철학과 심리학 양 쪽에서 진행된다. 먼저, 비의식적 상태를 개념적 내용을 갖지 않는 상태로 보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의식적 수준에서의 인지과정만 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이와 같은 논의는 크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개념과 언어간의 우선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가령 브랜덤, 데이빗슨, 더밋 등의 철학자들은 개념을 갖기 위해 주체는 반드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자연언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맥도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주장은 언어를 아직 습득하지 않았거나 갖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어떤 지각경험이나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아나 인간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동물들의 심적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 2. 개념의 규정과 맥도웰/브루어의 개념주의에 대한 해석

앞 장에서 철학에서의 개념이론이 심리학과 달리 정당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장에서는 철학 안에서도 특히 지각경험에 대한 개념주의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며, 지각경험의 인식론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1 개념의 특징: 에반스의 개념과 개념주의자들의 개념

우리는 지각경험에 내용을 귀속시킬 때, 어떤 내용이 해당 지각경험을 적절하게 드러내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원통형의 물병을 보고 있는 영수의 지각 경험에 내용을 귀속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영수의 경험에 <책상 위에 있는 물병은 직육면체이다>라는 내용을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물병은 원통형이다>라는 내용은 영수의 경험 내용으로 적절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거꾸로, 첫 번째 명제는 영수의 경험에 비춰볼 때 틀렸지만 두 번째 명제는 맞다. 이처럼 지각경험에 귀속되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맞거나 틀리는지((in)correct)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적 상태가 갖는 내용은 심적 상태가 갖는 일종의 특징이다. 지각경험에 귀속되는 내용이 개념적인 내용일 경우 그 심적 상태는 개념적이라고 하자. 지각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는 버뮤데즈(Bermudez 2007: 66)를 받아들여 아래 (BM)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등의 이유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포더 등에 의해 경험과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제기된다.

(BM) (지각주체가 특정한 지각 상태에 있다 → 지각주체의 심적 상태가 항상 개념적이다)

위의 조건문에서 후건은 지각주체의 심적 상태를 개념적인 내용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개념주의를 견지하는 맥도웰과 브루어도 비개념주의를 주장하는 에반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개념의 규정과 개념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는 일은 에반스의 이론에서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에반스의 개념은 2.1에서 설명한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들 중 개념을 능력으로 보는 입장에 해당한다. 에반스는 개념에 대한 규정을 프레게의 뜻 이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낸다. 프레게는 언어표현의 의미를 뜻과 지시체,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뜻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존재자로서 언어표현의 지시체를 제시한다. 에반스의 개념도 뜻처럼 언어표현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대상[지시체]와 주체 사이를 매개한다. 그러나 에반스의 개념은 추상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대상과 주체 사이의 (인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시체를 생각하는 방법(a way of thinking *Bedeutung*)이다.<sup>6</sup> 또 에반스가 생각하는 개념도

---

<sup>6</sup> 개념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관계에 토대를 두므로, 개념의 개별화는 환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에반스의 개념 이론을 따를 경우, 우리는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는 심성 내용이 부분적으로 외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성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individualism/internalism)는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오로지 심적 주체의 내적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심성 내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언어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 있지만, 개념은 언어표현의 의미로서 보다는 주체의 심성 내용을 구성한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sup>7</sup>

에반스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며, 개념은 그 구조를 구성한다. 개념이 구조를 이뤄 형성하는 내용을 ‘사고(thought)’라고 부를 수도 있다.<sup>8</sup> 사고의 구조성을 규정하는 에반스의 일반성 제약(Generality Constraint)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인식주체가 특정 구조를 가진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인식주체는 그 내용의 구성 요소들을 재결합하여 그와 연관된 다른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개념은

---

<sup>7</sup> 프레게를 따르면 개념을 언어표현의 의미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개념주의 논쟁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프레게의 뜻과는 다소 다르다. 프레게는 (사람마다 다르며 타인과의 공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적인 관념과 달리 뜻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개념주의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특별한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는 개념의 기초적인 역할로 범주화(categorization)를 들 수 있다. 가령 <자주색>이라는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각한 특정한 사물들을 <자주색>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주색으로 분류하는 사물들의 집합이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주색>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용이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자주색>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색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판단들 중 상당수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색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물의 색깔에 대한 기초적인 지각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따라서 개념주의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은 공적인 프레게의 뜻과는 달리 사적인 측면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개념주의가 사적 언어를 전제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sup>8</sup> 프레게의 의미이론에서 ‘사고’는 문장의 뜻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사고 역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제이다. 그 점에서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바로 앞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프레게의 뜻과 에반스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심성 내용의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에반스의 일반성 제약이 만족될 수 있게끔 한다. 예를 들어, 주체가 <a is F>, <b is G>라는 개념적인 심성 내용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주체는 그 구조적 내용들을 이루는 요소들을 재조합하여 <a is G>, <b is F>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개념으로 구성된 내용은 논증의 전제, 결론이 될 수 있는 판단의 형식을 띠고 있다. (Evans 1982: 100-104)

에반스에 따르면, 개념은 인식주체가 해당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는 독립적으로 경험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반스는 특정 주체가 어떤 개념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면, 주체는 그 개념을 맥락이 바뀐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에반스의 개념은 그 개념을 내용으로 갖는 심적 상태에 주체가 최초로 처하기 이전에 주체가 이미 습득한 것으로서, 주체가 여러 맥락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을 따를 경우,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보다 주체의 지각경험은 훨씬 풍부한 것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특정한 공간의 크기에 관해서 주체가 그 공간을 보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미터법 등의 개념이다. 하지만 주체는 자신 앞에 있는 공간의 부피가 구체적으로 몇 세제곱 미터인지 몰라도 그 공간의 부피를 지각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공간의 부피와 비교할 수 있다. 색 경험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빨강>, <파랑> 등의 개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영수는 색 구성표의 각 부분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수는 색 구성표를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다. 이처럼 영수가 가진 개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풍부성 논증(the Richness Argument)을 통해 보일 수 있다(Evans 1982: 229-234 참조):

- (1) 지각주체가 특정한 지각상태(예: 색 스펙트럼, 공간을 지각하는 상태)에 있다.
- (2) 이 지각상태의 내용을 (완전히)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각주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념이 필요하다.
- (3) ∴ 지각주체는 자신이 가진 개념만으로 특성화할 수 없는 지각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에반스는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지각 상태가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지각경험의 내용은 개념만 가지고서는 특성화할 수 없다. 에반스는 이런 비개념적 지각 상태가 개념화된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색 구성표에 대한 영수의 지각경험의 내용이 영수 자신이 가진 개념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맞지만, 이 경험 내용이 에반스의 주장처럼 비개념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영수가 가진 개념들만으로 그 경험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각경험의 비개념성을 따진다면, 영수의 지각경험은 비개념적이다. 색 구성표에 대한 영수의 지각 내용은 영수가 가진 개념들만으로는 특성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 구성표의 색들을 특성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다른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사람 A가 있다면, A는 색 구성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개념을 사용하여 특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수의 관점에서는 비개념적이었던 색 경험이 이 사람(A)의 관점에서는 개념적인 것처럼, 즉 관점에 따라 경험의 개념성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수가 몰랐을 뿐 영수의 색 경험을 개념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식은

있었던 것이므로, 색 구성표에 대한 경험은 누가 표를 보는가와 상관없이 개념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험의 개념성은 주체에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체의 인지능력과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험의 개념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헵이 처음 제안했다. 헵에 따르면 에반스(Evans 1982)를 비롯한 개념주의 혹은 비개념주의에 대한 주장들은 상태에 대한 주장(state-view)과 내용에 대한 주장(content-view),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Heck 2000, 2007) 상태에 대한 주장으로서의 비개념주의는 주체가 지각경험을 할 때 주체가 어떤 인지적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해명하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내용에 대한 주장으로서 비개념주의는 주체의 지각내용의 본성에 관한 주장이다. 각각은 아래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Heck 2007:119-120; Toribio 354 등)<sup>9</sup>

**상태 비개념주의** 주체가 임의의 시점  $t$ 에 갖는 지각 상태  $E$ 가 비개념적인 것은 주체가  $E$ 의 내용  $C$ 를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념을 주체가 갖고 있지 않아도  $E$ 에 있을 수 있는 경우 오직 그 경우뿐이다.

**내용 비개념주의** 내용  $C$ 를 갖는 모든 지각 상태  $E$ 에서,  $C$ 가 비개념적인 것은  $C$ 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 오직 그

---

<sup>9</sup> 개념주의 혹은 비개념주의를 상태 해석과 내용 해석으로 구분하는 것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안된 것은 Heck(2000: 485-486)이었다. 그러나 헵은 여기서의 구분법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Heck 2007: 13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후에 제기된 구분법에 따라 내용과 상태 비개념주의를 정식화하기로 한다.



경우뿐이다.

가령 상태 비개념주의에 따르면, 특정 지각 상태가 개념적인지 비개념적인지 여부는 지각주체가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인식주체가 갖는 지각상태가 인식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범위에 의존적일(*concept-dependent*) 경우—지각상태가 인식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지각상태는 개념적이며, 비의존적일(*concept-independent*) 경우 지각상태는 비개념적이다. 이처럼 상태 비개념주의에 따른 지각 상태의 (비)개념성 판단은 주체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피크스는 상태-비개념적인 지각 내용을 “(주체에) 상대적인(*relative*) 비개념적 내용”이라고 부른다. (*Speaks 360*)

한편, 내용 비개념주의에 따르면 특정한 지각 상태의 내용은 믿음과 다른 종류의 내용을 갖는다. 개념주의 논쟁에서 믿음이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므로, 내용 비개념주의는 대개 지각 상태가 믿음과 달리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는 논제로 대개 이해된다. 내용 비개념주의는 내용의 본성에 따라 지각 내용의 (비)개념성을 구분하므로 주체와 상관없이 내용의 (비)개념성이 결정되는데, 이 점에서 내용-비개념적인 지각 내용을 스피크스는 “절대적인(*absolute*) 비개념적 내용”이라고 부른다(*Speaks 359*).

이와 같은 상태 해석과 내용 해석의 구분에 따르면, 앞서 영수의 경험은 비개념적이지만 A의 경험은 개념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상태 해석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수가 가진 개념들의 범위와 상관없이 영수의 경험은 개념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내용 해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풍부성 논증은 상태 해석에 따른 비개념주의를 보여줄 뿐 내용 해석에

따른 비개념주의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풍부성 사례를 비롯해 비개념주의의 입장으로 소개된 여러 가지 논증들이 내용 비개념주의가 아니라 상태 비개념주의를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Bermudez 2011: 9)

이에 따라 비개념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는 개념주의 논쟁이 상태 해석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령 스톨네이커는 명제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그러므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모두 가능세계들의 집합을 그 내용으로 갖는다. 그러면 지각경험의 내용과 지각적 믿음의 내용은 둘 다 내용 해석에 따른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경험의 내용과 지각적 믿음은 서로 구분되어야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sup>11</sup> 이 때 상태 비개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지각경험의 내용과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개념적인 것과 개념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시 구별할 수 있으므로 경험과 믿음 간의 정당화 관계를 다시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내용 비개념주의에 대한 논변이 구성될 수 있고, 따라서 여전히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 개념주의 논쟁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

<sup>10</sup> 스톨네이커에 있어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모두 가능세계의 집합을 내용으로 가지는 정보적 상태이다.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구체적인 입장은 Stalnaker 1998에 전개되어 있다.

<sup>11</sup> 여기에서 정당화 관계에서 정당화되는 심성 내용과 정당화자는 서로 달라야 한다는 가정을 필자는 사용하고 있다. 이 가정은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인식론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 가정이 개념주의와 관련하여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4.1절에서 더 다루어질 것이다.

것이다. 이를 위해 핵은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와 같이 비개념적 내용을 보여주고자 한다. (Heck 2007: 125-128) 피콕의 시나리오 내용(scenario content) 역시 내용 비개념주의에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eacocke 1992: 61-98)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비개념주의를 개념주의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비개념주의가 따르고 있는 해석에 따라 그 논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주의자의 개념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이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 각 해석에 따른 개념주의 논변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념주의자들의 개념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Brewer 1999: 149-150)

(Br) 지각 상태가 개념적일 필요충분조건은 (i), (ii)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다:

(i) 지각 상태의 표상적 내용은 개념들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지각의 주체는 표현에 필요한 개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 표상적 내용은 추론의 전제와 결론이 될 수 있는 형식을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개념주의의 주장이 상태 해석적인 측면과 내용 해석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i)는 지각 상태가 상태해석에 따라 개념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과 동일하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로만 지각 상태의 내용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ii)는 지각 상태의 내용이 믿음 내용과 함께 추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따라 나왔다. 이는 지각 주체가 경험을 통해 얻은 외부에 대한 표상 내용을 합리적인 사고 및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과 사고 내용들로 이루어진 추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개념주의 논쟁에서 믿음 내용은 대개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별 논란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는 아마도 믿음의 내용이 추론을 구성하거나 심리학적 설명을 구성하는 데에 흔히 동원되므로, 믿음은 명제를 그 내용으로 갖는다는 직관이 만연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단 추론에 사용되는 전제나 결론이 명제라면, 나머지 전제나 결론 역시 명제이어야 각 단계의 논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추론이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ii)는 지각 상태가 내용해석에 따라 개념적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개념주의의 내용 해석과 동일하다. 그리고 브루어의 개념 규정에서는 (i), (ii)를 연언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풍부성 논증에 따라 (i)만 부정되어도 비개념적 지각 상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맥도웰, 브루어의 개념주의 규정에서 내용 해석과 상태 해석은 구분되지 않는다.

개념주의가 상태 해석적인 측면과 내용 해석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개념주의의 특정한 개념규정 때문이다. 개념주의자들은 에반스를 따라 지시체를 생각하는 방식, 즉 지시체에 대한 사고 능력으로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에 개념주의자들은 개념은 주체의 합리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덧붙인다. 그러면 내용 개념주의에 따라 어떤 주체의 심적 상태가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개념들이 주체의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심적 상태를 이루는 개념들은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내용은 주체가 가진 개념들만으로 특성화될 수 있고, 그 점에서 이 지각 상태는 상태 해석에 따르더라도 개념적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개념주의의 개념규정상 개념주의는 비개념주의가 상태 해석을 따르던 내용 해석을

따르건 상관없이 비개념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sup>1213</sup>

그러면 앞서 제시한 풍부성 논증에 대하여 개념주의는 어떻게 대답할까? 맥도웰과 브루어는 지시사(demonstrative) 개념을 도입하여 색 구성표나 임의의 공간에 대한 영수의 지각경험은 개념적이라고 설명한다. 맥도웰은 맥락을 통해서만 그 지시체와 뜻이 결정되는 지시사 역시 개념 표현 중 하나로 이해한다. 그래서 주체는 지시사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각경험 내용을 특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that’, ‘this’

---

<sup>12</sup> 이와 유사한 입장을 토리비오 (Toribio 360)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개념을 지시체를 생각하는 특정한 유형의 능력으로, 특정한 심적 상태가 개념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따를 경우 상태 비개념주의는 내용 비개념주의를 함축한다.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 상태 비개념주의와 내용 개념주의가 양립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내용 개념주의에 따라 주체는 그 심성 내용에 해당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주체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내용 개념주의가 상태 개념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사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내용 개념주의는 상태 개념주의를 함축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역으로, 내용 비개념주의도 상태 비개념주의를 함축한다. 가령 심성 내용이 내용해석에 따를 때 개념적 내용이 아닌 다른 종류의 내용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내용은 개념으로 특성화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주체가 가진 개념들로도 특성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 비개념주의는 상태 비개념주의를 함축한다. 요컨대, 개념을 특정한 사고 능력으로 보는 입장에서 내용 비개념주의와 상태 비개념주의는 서로 함축 관계에 있다.

<sup>13</sup>버뮤데즈는 예전 논문에서 지각 상태에 대한 비개념주의 논쟁이 상태 비개념주의가 아니라 내용 비개념주의에 대한 논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rmudez 2007: 67-68) 그 근거로 버뮤데즈는 상태 비개념주의를 따를 경우 지각 상태와 지각적 믿음은 한 종류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이후 논문을 보건대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Bermudez 2011: 10-12, 21-22) 버뮤데즈의 주장이 맞다면 상태 비개념주의가 가능한지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버뮤데즈의 주장은 문헌적 근거가 빈약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태 비개념주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등의 지시사 표현을 주체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주체는 지시대상과의 인과관계를 통해 대상이 어떤 속성들을 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에 드러나는 모습<sup>14</sup>에 의해 지시사 개념의 뜻과 지시체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가령 <Water is *that stuff*>와 같이 <*that stuff*>라는 지시사 개념을 포함한 사고의 경우, <*that stuff*>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주체가 대상에 대해 갖는 생각, 즉 주관적 개념화에 의해서 <*that stuff*>의 의미가 정해지며, 이 개념을 포함한 사고 <Water is *that stuff*>의 뜻과 지시체도 결정된다.

비록 지시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에반스의 개념규정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개념주의의 고유한 지시사 개념은 에반스의 지시사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에반스에 따르면, 주체는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해주는 다른 개념이 없어도 지시사 개념 <*this*>를 포함하는 <*this is F*>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에반스에 따르면, <*this*>-, <*here*>-생각들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식주체는 지시사를 통해 대상을 직접 지칭하는데, 이 지칭은 대상과의 인과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인식주체는 시각 체계 등 정보를 얻는 채널을 통해 지칭되는 대상과 정보고리(*information-link*)로 연결되는데, 이 정보고리 및 이 정보고리를 통해 유입되는 지시체에 대한 정보가 <*this*>-, <*here*>-생각들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지시체가 고정되는 인과적 과정에서 습득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들로부터 지시사적 생각들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지시체가 어떤 속성들을

---

<sup>14</sup> 예를 들어, 주체의 관점에서 복잡하게 드러난 표상을 ‘*this*’라는 지시사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귀속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주체의 관점에 나타난 표상을 “개념의 주관적 개념화(*subjective conception*)”라는 표현으로 일컫는다..

예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며, ‘this’나 ‘here’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장소가 어떤 곳인지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지시사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곧, 인식주체는 속성  $F_i$ 가 예화되었다는 정보만 가지고도 <This is  $F_i$ >, <Here is  $F_i$ >가 참이라는 판단을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내릴 수 있다. 이러한 F의 예화에 대한 정보와 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매개나 중간과정이 없는데, 이런 <this>, <here>-생각은 <This = a>, <Here = b> (a, b는 특정 대상이나 장소의 정체)와 같은 식별에 대한 지식[식별요소(identification-component)]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this>, <that> 등 지시사 개념의 주관적 개념화는 각 지시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체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체와 어떤 공간적인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점에서 <this>, <that> 등 지시사 개념은 주체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결정된다.<sup>15</sup>

지시사에 대해 개념주의와 에반스가 동일한 분석을 받아들이는 데도 지시사 개념이 개념주의에서만 용인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체가 개념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에반스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에반스는 개념이 맥락의존적으로 학습되거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령 지시사 ‘this’가 개념을 표현한다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주체는 맥락이 바뀌어도 이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여 같은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맥락이 바뀌면 이 지시사의 지시체는 더 이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거나 아예 사라져 있을

---

<sup>15</sup> 지시사 개념 분석에 대해서는 Evans 179-191 참조; 개념주의가 풍부성 논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시사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는 McDowell 1994: 56-60, Brewer 1999: 170-174 참조.

수 있다. 그 경우 주체는 더 이상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거나 재인할 때 ‘this’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에반스에 따르면, 주체가 특정 개념을 알고 있다면 주체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 개념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는 ‘this’가 표현하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거나 ‘this’와 같은 지시사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반면 개념주의는 개념의 지시체가 맥락의존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개념은 또한 맥락의존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체는 고유명사 또는 일반명사뿐만 아니라 ‘this’, ‘that’ 등의 지시사도 개념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각각의 지시사 개념들을 사용할 때, 언어표현상으로는 제대로 구별되지 않더라도 주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개념화는 다를 수 있다. 그 까닭에 개념 및 개념으로 이루어진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언어표현과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개념화 및 지시사 개념을 통해 풍부한 지각경험을 개념으로 완전히 특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개념주의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지각경험 역시 구조화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개념주의자들은 지각경험의 내용이 구조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에반스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개념주의는 에반스와 달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articulate) 그 언어표현에 해당하는 개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지시사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개념이 언어표현과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더라도 주체가 ‘this’, ‘that’ 등의 지시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지시사 표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속한 반성적인 전통에서는, 이유(reason)와 담화(discourse) 사이에



관례적인 연결관계가 있다. (...) 주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이유들은, 그것이 명시화할 수 있는 것인 한, 개념의 영역에 속해야만 한다. (McDowell 1994:165)

개념주의는 주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을 경우, 주체는 그 개념을 언어 표현으로 명시화(articulate)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McDowell 1994:6에서 맥도웰은 “개념적으로 조직화된, 그래서 명시화할 수 있는 항목(one conceptually organized, and so articulable, ite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에반스는 개념과 명시화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내용은 명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명시화될 수 있는 언어표현이 반드시 개념적인 내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에반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에반스와 개념주의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라서게 된다.

개념에 대해 재인이나 명시화 가능성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왜 붙어야 하는지 개념주의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에반스보다 개념주의가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표현에는 그에 대응하면서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이 반드시 있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사고를 언어표현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개념주의의 개념 규정을 받아들이면, 심성 내용이 개념적이라는 것은 심적 상태가 개념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갖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가 심성 내용을 명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함축한다.

요컨대, 맥도웰, 브루어 등의 개념주의자들은 지시체를 생각하는

방식이 개념이라는 에반스의 규정은 받아들이지만 지각경험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에반스와 대립한다. 또 에반스의 지시사 분석을 응용하여, 에반스는 인정하지 않았던 지시사 개념을 도입한다.

## 2.2 경험내용의 역할: 지각적 믿음 내용의 정당화

2.1절에서 우리는 (비)개념주의에 대한 상태해석과 내용해석 중 어떤 것을 따르건 상관없이 개념주의는 항상 지각경험을 완전히 개념만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지각경험을 개념을 가지고 특성화함으로써 개념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들은 크게 외재주의(externalism)와 내재주의(internalism)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화에 대한 외재주의에 따르면, 특정한 믿음을 정당하게 만드는 정당화자는 주체에게 반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인식주체와 상관없이 사실적으로 개연적이어야 한다. 가령 신빙주의(reliabilism)은 어떤 믿음이 사실적인 개연성을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느냐에 따라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약간의 술을 마셔 지각 능력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 이 때 철수가 자신이 걷고 있는 인도 위에 곧게 그려져 있는 자전거도로 경계선을 보고, <이 길의 오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나 있다>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철수의 믿음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음주 상태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철수에게 반성을 통해 알려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수는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정당화에 대한 외재주의를 따를 경우 이처럼 주체가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당화자를 모를 수도 있으므로, 특정 믿음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 믿음 주체의 합리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개념주의는 주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지각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지각경험으로부터 지각적 믿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주체의 합리적인 인지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념주의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 즉 임의의 믿음의 정당화자는 그 믿음의 주체에게 반성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는 개념주의가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설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앞서 철수의 사례에서 철수의 행위 결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음주 상태, 공간인지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맥도웰은 제3자의 관점에서 특정 주체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체가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체의 합리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McDowell 1995a: 298) 이런 까닭에 외재주의적 정당화는 개념주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도 주로 내재주의적 정당화를 다루며, 주체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과 주체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으로 간주할 것이다.<sup>16</sup>

---

<sup>16</sup> 합리성에 대해서는 경제학, 심리학 등 경험과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험과학에서의 합리성 연구 중 상당수는 행동주의적인 영향을 받아 3인칭 관점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정당화에 대한 외재주의처럼 주체가 의식하고 있는 사고과정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행위주체의 합리성을 설명한다기 보다는 합리성을 이미 가정한 상황에서 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념주의가 취하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는 다시 정합론과 토대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토대론에 따르면, 믿음들 중에서도 기초적인 믿음을 구별해낼 수 있으며, 이 기초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닌 다른 요인—지각적 믿음의 경우에는 지각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정합론에 따르면, 기초적인 믿음을 구별해낼 수는 없으며, 믿음은 다른 믿음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먼저, 개념주의는 정합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념주의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남으로써 주체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알려준다. 그러나 데이빗슨식의 정합론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믿음의 정당화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대신 정당화는 오로지 믿음들 사이의 정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의 정당화자로서 경험의 역할을 부정할 경우, 믿음의 정당화는 외부 세계의 사태 혹은 사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개념주의는 주장한다. 주체를 세계와 연결하며, 세계와 동떨어진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약(rationally constraint)하는 것이 경험인데,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경험은 정당화에 있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정합론에서 주장하는 정당화는 믿음들 간의 정합성만 강조한 나머지 믿음이 실제로 참임을 보장하지 못한다. (McDowell 1994: 14-17)

그러나 개념주의는 지각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지각경험을 정당화자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믿음의 정당화를 외부 세계의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개념은 대상을

---

서는 경험과학 등을 통해 3인칭적 관점에서 주체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1인칭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사고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대상과 주체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한다. 개념적인 경험 내용은 이와 같은 개념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매개 없이 외부 사태를 직접 가리킨다. 그러므로 개념적인 경험 내용은 항상 외부 세계를 반영하며, 개념주의에 따라 경험을 믿음의 정당화자로 받아들일 경우 믿음은 경험 및 세계의 사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그 내용이 통제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내용의 믿음을 합리적인 주체가 갖게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개념주의가 도입하는 개념 및 경험 내용의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 (JT)와 같은 논제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지각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지각적 믿음이 세계의 사태와 조응함을 드러내야 한다. 경험과 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개념은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당화된 믿음은 사실적 참을 드러내야 한다. 이 점에서 개념주의는 정당화와 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암묵적 가정을 하고 있다.

(JT) 임의의 주체 S에 대해, S가 <there is an O>라는 지각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에 대한 S의 정당화는 <there is an O>를 함축한다.

S가 가지고 있는 지각적 믿음 p가 지식이라면 이는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만약 참인 믿음을 어떤 지각경험이 정당화한다면, 그 경험은 p가 거짓인 경우와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경험은 대상에 의존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그 경험 대상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 p를 정당화하는 경험은 p가 참임을 함축한다.

필자는 이 점이 맥도웰의 인식론적 선언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맥도웰에 의하면, 참인 지각은 환각보다 더 좋은 지각적 증거(인식론적 보증)을 준다는 점에서 환각, 환상과 구분된다. 진실된 지각일 때 주체의 지향적 내용은 ‘S sees that p’와 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환각, 환상일 때 주체는 단지 현상(mere appearance)만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it looks to S as if p’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환각, 착시 등이 없는 지각 상황)에서 주체가 지각 E를 근거로 외부세계에 대한 믿음을 알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E는 충분히 좋은 증거이다. 풀어서 말하면, 경험은 충분히 좋은 증거로서 참인 믿음을 정당화하거나 충분히 좋은 증거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뿐 참인 믿음은 전혀 정당화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를 인식론적인 선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Byrne & Logue 2009: 67) 그러므로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인 지각경험은 항상 <S sees that p>라는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 경험은 좋은 증거이므로 실제로도 참이며, 이는 곧 (JT)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JT)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 안에서도 토대론을 가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당화에 대한 정합론을 받아들일 경우, 개념주의의 해석에 의하면 지각적 믿음은 거짓임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JT)를 받아들이면 정당화된 믿음은 참일 것이다. 또한 (JT)에 따라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지각경험은 더 이상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기초적인 것으로서 주체를 세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주의는 토대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개념주의는 토대론이 아니라고 맥도웰은 주장한다.

김슨은 나의 관점을 토대론의 한 형태로 묘사한다. 내가 개념에 정당화자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김슨의 생각은 맞다. 그러나 토대의

이미지는 내 구상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잠재적인 오도성을 가지고 있다 (...) 우리가 “상위구조(superstructure)”라고 부르고 싶은 만한 것이 “토대”라고 부르고 싶은 만한 것 위에 합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념은 경험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의 영역은 합리적인 상호연관관계의 매끄러운 망(seamless web)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의 합리적인 의존관계도 있다. 이 다른 차원의 합리적 의존관계에 대해서, “토대”는 “상위구조”에 의해 지지되며, 이것은 토대의 이미지를 불행하게 만든다. (McDowell 1995a: 284)

토대론의 기초적 믿음에 해당하는 경험은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러므로 경험은 주체가 가진 개념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개념들은 주체가 가진 믿음들과도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경험과 믿음은 상호의존적일 것이라는 것이 맥도웰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만으로는 맥도웰이 정당화에 대한 토대론을 거부한다고 보기 힘들다. 위 인용문에서 맥도웰은 ‘합리적 의존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반드시 정당화와 동일한 관계라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맥도웰이 언급한대로 개념적인 심성 내용들 간에 모종의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 연관관계는 정합론적인 그림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합리적 연관관계 자체가 정당화 관계가 아니라, 이 합리적 연관관계 중 일부만이 경험에 의한 정당화 관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증명처럼 기존에 알려진 명제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추론들이 있다. 이는 합리적 연관관계이지만 정당화 관계는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맥도웰의 입장은 정당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대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맥도웰이 경험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믿음이 경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이러한 이와 같이 합리적 연관관계와 정당화를 구분하는 해석 하에서 매끄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JT)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계의 사실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 정당화자, 즉 기초적인 정당화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맥도웰의 주장은 정당화에 관한 한, 여전히 지각을 기초적인 정당화자로 보는 토대론적 정당화 이론으로 보인다.

개념주의는 특히 지각경험 내용이 지각적 믿음 내용을 정당화할 경우 지각 주체가 지각경험의 내용을 전제로,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결론으로 하는 추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추론의 각 단계는 판단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지각경험의 내용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판단의 형식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주의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헉과 프라이어 역시 지적하고 있다(Pryor 191). 프라이어는 정당화자가 추론에 쓰일 수 있는 명제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원칙(the Premise Principle)이라고 부른다.

**전제원칙** 어떤 명제들을 주장적으로 표상하는 다른 상태들만이 믿음 P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때 표상되는 명제들은 P를 보이는 논증에서 전제로 사용될 수 있는(could be used as premises) 것들이다. 이 명제들은 P와 모종의 추론적 관계(P를 함축하거나 귀납적으로 지지하는 등)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Pryor 191)

정합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제원칙을 믿음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며, 임의의 어떤 믿음의 정당화는 믿음들간의 정합적인 추론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념주의자들에 따라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상태가 개념적인 내용을 표상할 경우에도 전제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설명한 개념의 정의를 고려해볼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심적 상태가 개념적이라면, 그 상태의 내용은 언제나 그 주체가 갖고 있는 개념들만을 사용하여 전제나 결론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각경험은 개념적 내용을 가지므로 믿음뿐만 아니라 경험도 정당화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 프라이어가 전제원칙을 내세운 것은 정합론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프라이어는 경험 등에 의한 즉각적인(immediate)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합론의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원칙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프라이어에 따르면 정합론은 정당화 제시자(justification-shower)와 실제 정당화자(justification-maker)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당화자’가 어떤 믿음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요소를 가리킨다면, ‘정당화 제시자’는 그 믿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체가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프라이어의 비유를 빌리면, 조명기구는 방을 “아름답게 만드는(beatify)” 것이지, 방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어의 비유를 응용하면, 전기회로도는 어떤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전류를 흐르게 하지는 않는다. 실제 정당화자는 전자의 비유에서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정당화 제시자는 후자의 비유에서 회로도에 해당한다. (Pryor 194) 전제원칙을 받아들이는 정합론은 전제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당화 제시자도 실제 정당화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프라이어는 이처럼 전제원칙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정합론을 논파하고자 한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전제원칙 자체는 토대론에서 보이는 즉각적인 정당화를 여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전제원칙에 따라 구성된 논증의 전제로서 기초적인 믿음 또는 경험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제원칙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개념주의는 여전히 토대론이지만 프라이어 등의 토대론적 주장과는 차이를 갖는다.

프라이어는 개념주의 논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Pryor 191) 하지만 프라이어의 전제원칙은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논쟁에서 개념주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제원칙에 의하면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는 명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제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제원칙으로부터 개념의 필요성이 따라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념주의에 따르면 전제로 사용된 개념적인 내용은 곧 경험의 내용이므로 프라이어가 지적한 실제 정당화자와 정당화 제시자를 혼동하는 오류도 피해갈 수 있다.

개념주의에 따르면, 개념적이지 않은 경험을 믿음의 정당화자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소녀의 신화에 빠질 수 있다. 소녀는 외부 세계를 통해 주체에게 주어진 감각적인 자극 또는 어떤 경험이지만, 어떠한 개념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체가 합리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이런 소녀가 믿음의 정당화자라면, 주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 내용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녀는 믿음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당화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주체를 단지 면제(exculpate)해 줄 뿐이다. (McDowell 1994: 13) 하지만 개념은 주체가 자신의 합리성을 사용하여 다룰 수 있으므로, 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갖는다면 주체는 소녀의 신화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개념은 정당화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개념주의에 따르면, 주체가 외부 세계를 경험할 때 개념적 능력이 실현된다. 개념적 능력은 인식주체가 가진 합리적 능력에 속한다. 주체의 합리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지과정 가운데 하나는 인식주체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맥도웰은 개념적 능력이 능동적인 판단과정에 사용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개념적 능력이 주체의 지각경험 과정, 즉 주체에게 외부 세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현시(appear)되는 과정에도 작동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맥도웰의 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험을 이유로 믿음을 판단하는 능력 역시 개념적 능력에 속할 것이다.

그러면 개념적 능력은 크게 두 가지 과정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적인 심성 내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논증(reasoning) 과정이다. 이 논증은 믿음 내용 간의 논증일 수도 있고, 경험을 근거로 믿음/판단을 이끌어내는 논증일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개념을 사용하여 외부 대상을 표상하는 과정이다. 두 과정의 공통점은 새로운 개념적 심성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내용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개념적 능력은 개념적 내용을 얻기 위해 주체가 발휘하는 합리적 능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말했듯이 두 종류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적 능력이 동일하므로, 맥도웰과 브루어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결국 동일한 개념적 능력이 발휘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 맥도웰의 사례

- (1) 나는 옷장 안의 옷들이 더럽다는 것을 본다.
- (2) 나는 옷장 안의 옷들이 더럽다는 것을 믿는다. (McDowell 2009:

131을 토대로 재구성)

### 브루어의 사례

- (1) 만약 한 도형이 변환을 통해 다른 도형과 완전히 겹쳐질 수 있다면, 두 도형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 (2) 그 도형 A(that<sub>A</sub> figure)는 저 도형 B(that<sub>B</sub> figure)로 크기와 모양의 변화 없이 변환될 수 있다.
- (3) 그러므로 A와 B는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Brewer 2005: 220)

그러면 맥도웰의 논의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맥도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경험에 의한 믿음의 정당화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을 결정할 이유를 경험 내용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가령 사막을 지나가던 영수가 조금 떨어진 곳에 호수를 발견했다. 영수는 자신의 시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저기에 호수가 있다”(p)라고 믿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신기루라고 생각해 “저기에 호수가 없다”(~p)고 믿을 수도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영수의 시각 경험의 내용은 영수가 p를 믿기로 결정할 이유가 된다. 이 때 주체는 자신의 경험 내용을 반성함으로써 p를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영수가 사막에서의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험에 대한 반성 없이 지각적 믿음을 형성하더라도 경험을 반성하고 믿음을 결정할 능력이 영수에게 있다면 영수의 경험은 영수의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화를 명시적인 사후적 설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영수에게 왜 p를 믿게 되었는지 제3자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영수는 자신의 경험 내용을 그 이유로 대답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영수의 경험은 영수의

믿음을 정당화한다.

지각적 믿음에 대한 정당화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이해 방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지각적 믿음은 의도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각적 믿음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믿음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인식주체가 지각경험을 이유로 하여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인식주체가 사후에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유라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수가 길을 걷다가 길이 오른쪽으로 꺾여있는 것을 보고 걸어가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이 때 영수는 “이 길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와 같은 믿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또 길의 방향에 대한 경험을 반성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영수에게 왜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었는지 물어본다면, 길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걷는 영수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영수에게는 “이 길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라는 경험 내용이 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첫 번째 의미에서 정당화한다는 것은 주체의 발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두 번째 의미에서도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곧, 주체에게 왜 지각적 믿음  $p$ 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주체가 관련된 지각경험  $p$ 를 그 이유로 제시해야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이유로 지각적 믿음을 결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지각경험은 지각 주체가 특정한 지각적 믿음을 결정하기 위한 이유를 구성하며, 합리적인 주체가 특정한 믿음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요컨대, 경험 내용이 개념적이라면 우리는 전제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 데카르트적 자아나 소녀의 신화에 빠지지 않고 지각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개념적인 경험 내용이 주체에게 외부 세계를 알려주면서도 외부 세계를 향한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경험의 개념적 내용을 통해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주체가 해당 지각적 믿음을 믿기로 결정하기 위한 이유가 경험의 내용이며, 경험의 내용을 믿음의 이유로서 사후에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개념주의의 논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Brewer 2005: 218에 드러난 논증과 같다.

- (1) 지각경험은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
- (2)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각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 (3) ∴ 지각경험은 개념적 내용을 갖는다.

### 3. 개념주의에 대한 기존 비판

2장에서 우리는 개념주의의 논증을 세 단계로 정식화하였다. 개념주의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이 논증의 각 단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1)에 대한 비판은 매우 드물다. (1)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는 번(Byrne 2005)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번 역시 적극적인 논증을 통해 (1)을 반박하기 보다는, 그 자신이 비개념주의자이지만 (2)나 개념의 규정에 대한 만족스러운 반박 논증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1)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에 대한 비판과 개념주의의 개념 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에 대한 비판은 3.1에서, 개념 규정에 대한 비판은 3.2와 3.3에서 다룰 것이다.(본 논문에서 (1)은 일단 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 3.1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 지각경험의 개념성에 대한 비판

(2)에 따르면 개념적 내용  $p$ 에 대한 지각적 믿음이 그와 관련된 지각경험  $E$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은 지각경험이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다. 이 때 경험  $E$ 가 가져야 할 개념적 내용은 믿음의 내용과 동일한 명제  $p$ 이다.<sup>17</sup> 이러한 논제 (2)에 대한 주요 비판은 피콕과 헉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Peacocke 2001, Heck 2000)

---

<sup>17</sup>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브루어의 경우 경험 내용과 믿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정당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개념주의 논쟁과 관련된 주요 문헌들은 두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도 경험 내용과 믿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두 연구자 모두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체가 반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주체가 반성할 수 있는 경험 내용이 반드시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헉의 비판을 살펴보자. 헉은 소녀의 신화에 대한 맥도웰의 비판으로부터 맥도웰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경험은 표상적 내용을 가지며, 이 경험 내용은 믿음 내용과 의미론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 의미론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 내용으로부터 믿음 내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경험은 믿음을 직접적으로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서, 맥도웰은 경험에 대한 판단을 매개로 하여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헉은 이와 같은 맥도웰의 두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만 헉은 지각경험이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헉을 따를 경우 지각경험의 내용이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 맺는 관계는 개념주의가 주장하는 의미론적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은 헉이 지각경험의 내용이 반성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와 개념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동치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각경험의 내용은 반성 가능하면서도 개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헉의 지적이다. 예컨대 특정 공간에 대한 경험은 반성할 수 있지만 개념 표현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헉은 지각경험이 개념적이지 않더라도 반성 가능하다면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헉의 논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을 듯하다. 지각경험이 반드시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개념적인 지각경험의 내용 역시 개념화(conceptualization) 과정을 거쳐 일종의 개념적인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 개념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핵 역시 주지 못한다.<sup>18</sup> 그러나 핵은 개념화 과정이 지각 상태의 내용을 반성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지각적 믿음  $p$ 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정당화는 이러한 개념화 과정보다 세련된 인지과정이다. 개념화를 통해 확인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 관계로 연결하여 지각적 믿음  $p$ 라는 판단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과 맥도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핵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지며, 이 비개념적 내용을 개념화시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 관계로 연결할 수 있다. 반면 맥도웰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개념적 내용만을 가지므로 개념화 과정이 없어도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

피콕 역시 핵처럼 일종의 개념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피콕의 개념화 과정은 앞서 2장에서 설명한 개념의 소유조건과 관련이 있다. 피콕은 어떤 주체가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경우, 그 개념의 소유조건에 해당하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해내는 일종의 민감성(sensitivity)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합리적인) 민감성은 비개념적인 표상 내용[능력]과 개념적인 내용을 연결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주체가 비개념적인 어떤 방식으로 사각형에 대한 표상을 얻게 되면, 주체는 ‘사각형’ 개념으로 이행하려 한다. 이 이행을 일으키는 것이 주체의 합리적 민감성이다. 이 민감성은 추론보다 덜 세련된 수준에서 작동한다. 아마도 피콕은 이러한 민감성으로 인해 지각경험이 비개념적인 내용을 가져도 얼마든지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Peacocke 2001: 253)

---

<sup>18</sup> 이 과정은 무의식적인 인지처리과정까지 포괄할 것이므로, 철학적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념주의의 (2) 논제에 대한 피콕과 헉의 비판이 가진 두드러진 한계는 비개념적인 지각 내용으로부터 개념적인 지각적 믿음 내용으로의 개념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개념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념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앞서 각주 5에서 설명했듯이 철학적인 논의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고등인지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헉과 피콕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헉과 피콕 역시 지각경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만약 경험이 갖는 비개념적 내용이 개념화되어야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결국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개념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설사 경험이 정당화자로 쓰이기 이전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때는 개념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헉과 피콕의 논증은 개념주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 3.2 개념의 재인가능성에 대한 비판

지시사 개념의 경우, 그 개념을 통해 같은 대상을 다른 상황에서도 다시 확인[재인(recognition/re-identification)]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의 재인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에반스에 의하면 개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체는 그 개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시사 개념의 재인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개념에 관한 이와 같은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켈리의 재확인조건(re-identification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x에 대한 지시사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주체가 해당 대상 또는 속성을 그 개념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rewer 224-5에서 재인용, 원래는 Kelly 2001: 403) 그리고 켈리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다. 명도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녹색을 지각 주체에게 여러 차례 보여준다. 주체는 두 색깔을 항상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임의의 녹색 표본을 제시해준 뒤 이 표본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주체는 이를 재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색을 식별하는 주체의 능력은 색을 재인하는 능력을 항상 능가하므로, 개념으로 색에 대한 지각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켈리의 비판이다.

하지만 브루어와 같은 개념주의자는 재확인조건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재반박한다. 먼저, 재확인조건이 특정 대상을 지각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바로 그 대상(앞선 시점에서의 지각 대상과 수적으로도 동일한 대상)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체가 주의하지 않는 사이 지각 대상이 질적으로 같고 수적으로만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확인조건은, 주체가 그 대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고, 일정 시간 동안 경험을 하지 않은 후에도 그 대상의 수적 동일성에 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평행하게 지시사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조건은, 관찰조건이 변한 후에도 같은 색 표본을 일정한 연속적 시간 기간 동안 주체가 추적할 수 있고, 일정 시간 동안 경험을 하지 않은 후에도 주체가 원래의 표본이 수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인 혹은 재확인에 대해서는 맥도웰도 그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응답한다. 재인을 가능성으로만 한정 짓거나, 처음의 경험 이후에 단시간 안에 재인이 가능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지시사 개념의 재인불가능성을 근거로 개념주의를 비판하는 켈리가 지각과 재인이 서로 다른 인지과정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형태를 재인하는 과정은 표상을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표상과 대조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정모 외 109-133) 그러므로 재인은 주체의 기억 능력에 의존한다. 하지만 지각은 기억능력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시사 개념은 주체가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시사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주체의 기억 능력과 반드시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주체가 특정한 대상들을 지각하는 능력은 특정한 표상을 기억하는 능력보다 훨씬 세밀하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연속적인 색의 스펙트럼을 지각하고, 그 스펙트럼에 나타나 있는 색깔들의 차이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연속적인 색깔들을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거나 재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재인과 지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재인과 지각은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이며, 따라서 지각경험의 내용을 귀속시키는데 쓰인 개념에 대해 재인가능성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

### 3.3 지각적 개념의 의미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

지각경험에 내용을 귀속시키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대개 지각경험에 개념적인 내용을 귀속시킬 경우, 지각적 개념—수 개념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찰적 개념 등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의 습득 과정과 개념의 의미 및 지시체가 고정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개념의 습득 과정 및 의미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보자. 앞선 본 논문에서는 맥도웰이 풍부성 논증에 대해 개념에 대한 규정을 넓혀 지시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풍부성 논증으로 인한 난관을 피하고자 시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개념주의적 입장만 고수할 경우 주체가 어떻게 특정한 지시사 개념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맥도웰의 주장대로 외부 세계에 대한 내용이 개념적이며, 이 개념은 꼭 경험과 독립적으로 경험 이전에 알려질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특히 지시사 개념은 외부 세계가 주체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지시사 개념을 내용의 일부로 갖는 경험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책상을 봄으로써 <the desk has *that* color>(혹은 <the color of the desk is *that*>이라는 내용의 경험을 한다. 나는 이 시각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경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시사 개념 <*that* (color)>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지시사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대한 나의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개념주의에 의하면 경험은 지시사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지시사 개념을 주체가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체가 이 지시사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험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험내용은 다시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개념의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은 무한소급에 빠지게 된다. (Heck 2000)

개념주의는 개념의 지시체가 어떻게 고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인과적 지시 이론에 따르면 ‘*that*’과 같은 지시사는 현실 세계(actual world)의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사의 지시체는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과의 인과적 연쇄에

의해 고정적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나는 내 책상의 색깔을 조명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가령 지금 내 책상의 바로 위에는 형광등이 달려 있어서 책상의 색깔은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인다. 그렇지만 ‘that color’의 지시체는 색깔과 관련된 책상의 속성, 예를 들어 책상 표면을 구성하면서 색을 결정하는 어떠한 물질들로 고정된다. 그러면 현실 세계의 속성에 의해 그 지시체가 고정된 <that color> 개념은 나의 시각 경험 내용을 이룰 수 없다.

시각경험이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즉 비-진리적인(non-veridical)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식적인 경험에는 환각, 환상과 진실된(veridical) 시각경험이 있다. 시각 가령 지금 내 눈 앞에는 빨간 색 사과가 있다. 만약 내가 이 사과를 빨간 색의 둥근 물체라고 본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시각 경험은 지각자(‘나’)에 중심화된 가능세계(centered possible world)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이 사과가 실제로도 빨간 색이며(빨간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반사시킨다면) 구형이라면 나의 시각 경험은 진실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적록 색맹이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내 앞에 있는 사과는 사실 빨간 색이 아니라 녹색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과가 빨간 색인데도 나는 사과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면, 나의 경험은 ‘환상’(illus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사과가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 경험은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체의 지각이 진실될 경우 인과관계에 의한 지시체 개념의 고정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진실되지 않은 환각이나 환상의 경우 경험 내용을 이루는 지시체 개념이 어떻게 고정될 수 있는지 개념주의 이론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헉은 맥도웰이 비-진리적인 경험의 내용 귀속

문제를 지각에 대한 선언주의적 입장을 통해 해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언주의의 특징은 참인 지각과 그렇지 않은 지각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귀속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비-진리적인 지각경험에 대해서는 지시체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내용이 귀속될 것이다.

하지만 헵은 선언주의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선언주의에 따르면 지각의 진리성 여부에 따라 지각 내용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하는 지각 내용은 주체가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체가 항상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선언주의에 따르면, 주체는 자신의 지각이 참인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자신의 지각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반직관적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주체가 사막을 다니면서 신기루 현상으로 인해 오아시스를 보고 있다. 이 주체는 거짓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지각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직관에 따르면, 주체는 이 경험으로 인해 특정 위치로 이동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환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선언주의에 따르면, 이 주체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자신의 경험 내용을 모른다. 이러한 까닭에 헵은 선언주의에 따라 지각 내용을 결정하려는 입장을 거부한다. (Heck 2000)

아마도 맥도웰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McDowell 2008: 90-93) 맥도웰에 따르면, 주체는 자기지식에 관해 틀릴 수 있다. 자기지식은 단지 다른 외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해 반성만 하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만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과 다르다. 위의 상황에 맥도웰의 주장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주체는 '오아시스', '사막' 등의 개념적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체는 자신이 그 개념적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성을 통해 알 수 있고,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그 개념 사용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체가 잘못 알고 있거나 주체는 신기루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루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은 썩 만족스럽지 않다. 정당화에 관한 내재주의를 받아들이는 맥도웰에 따르면, 주체가 합리적일 경우 주체는 자신의 심성 내용을 반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맥도웰은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받아들인다. 이에 따르면 주체의 심성 내용은 부분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주체가 자신의 심성 내용을 어떻게 반성할 수 있는지, 반성할 수 있다면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4.3과 4.4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 4. 지각적 믿음에 대한 개념주의적 정당화의 두 가지 문제점

### 4.1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의 구분 불가능성

맥도웰은 비개념주의자인 에반스의 입장을 개념적 능력을 믿음으로 제한시키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맥도웰은 이러한 입장이 개념적인 믿음과 비개념적인 지각경험 사이의 거리를 단지 선제할 뿐,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에반스는 한편으로 개념적인 것과 다른 한편으로 감각들에 대한 세계의 영향 사이의 거리를 강요한다. 만약 감각들의 구성에서 직관의 역할로 인해 감각들은 (순수하게) 개념적이지 않은 능력으로 미리 가정된다면, 그 거리는 선제되고 있는 것이며 논증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McDowell 1994: 59)

이 절에서는 그러나 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할 경우 경험과 지각적 믿음이 제대로 구분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이 반박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헉의 입장을 잠시 빌려오기로 하자. 앞서 언급했듯이 헉은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모두 주장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지각경험의 내용은 외부 세계를 주체에게 표상/재현(represent)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다른 매개없이 주체에게 직접 제시(present)한다. 이 지점까지 헉의 입장은 맥도웰을 비롯한 개념주의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이 모두 제시적(presentative)

혹은 주장적(assertive) 태도라는 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은 ‘제시적’ 혹은 ‘주장적’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핵의 논의 맥락을 고려할 때, 또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 모두 주체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보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의 제시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 외부 세계의 사건 혹은 사태와 관계적이다.
- 2) 특정 내용의 참을 주체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1)의 경우 외부 세계의 사태/사건과 인과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가 달라질 경우 경험이나 믿음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다. 2)의 경우 감탄, 명령, 가정 등의 태도와 대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명제를 명령하거나 가정하는 주체는 해당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으며, 모를 수도 있다. 반면 주장의 경우 주체가 주장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핵은 지각경험의 제시적 태도를 주장함으로써 비개념주의를 소녀의 신화로부터 구제하고자 한다. 지각경험이 제시적 태도를 갖는다면, 일단 지각경험을 통해 주체에게 알려지는 것은 세계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세계의 사태 혹은 대상 그 자체이다. 또한 제시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진리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각경험 역시 명제적인 내용을 갖는 믿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론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각경험이 제시적 태도라는 점이 핵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먼저, 경험의 제시적 성격은 개념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깊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개념은 주체가 외부 세계의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과 주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가지고 개별화된다. 그러므로 개념을 통해 대상 또는 사건/사태가 주체에게 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9</sup>

각각 어떤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시적 혹은 주장적 태도인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맥도웰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개념이 수동적인 작용에 관여함으로써 일어나는 반면, 믿음은 개념이 능동적인 작용에 관여함으로써 일어난다. 경험이 수동적인 작용인 까닭은 주체가 어떤 대상 혹은 사건을 경험할 것인지 주체가 완전히 결정할 수 없으며,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과 달리 믿음은 경우에 따라 주체가 그것을 정말로 믿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맥도웰은 경험은 개념이 수동적인 능력과 결합하여 일어나며, 믿음은 개념이 능동적인 능력과 결합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경험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sup>20</sup>

---

<sup>19</sup> 개념을 통해 세계의 대상이나 사건, 사태가 직접 제시된다는 것은 맥도웰이나 브루어의 직접지각이론의 주요 입장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세계를 직접 지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긴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sup>20</sup> 경험을 수동적인 능력의 작용으로, 믿음을 능동적인 능력의 작용으로 보는 것은 맥도웰이 칸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지성은 개념을 통해 작용하며, 능동적이다. 반대로 감성은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서 주체가 의지에 따라 좌우할 수 없는 수동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대상의 인식은 감성을 통해 주어진 잡다한 표상들을 지성의 개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맥도웰은 대상의 인식에 관한 칸트의 주장을 경험에 관한 주장으로 해석한다. 맥도웰은 감성의 수동적인 작용 안에서 개념적 능력[능동성]이 작용함으로써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경험 역시 개념에 따른 정리가 없다면 주체에게 주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개념적 능력은 경험이 아닌 능동적인 사고 과정, 즉 믿음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각적 믿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맥도웰 본인도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각적 믿음은 반성을 통한 추론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사후적인 보고를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다. (McDowell 2006: 3-5) 필자가 이해하기에, 지각적 믿음이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지각적 믿음에 대한 수의적인(voluntary) 통제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보자. 영수는 검은 옷을 입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앞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영수는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영수는 <저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은 믿음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은 영수가 그 사람을 지각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일단 진실된 지각경험이 주어졌을 때, 개념주의의 제시적인 성격에 따르면 주체는 특정한 명제를 참 또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경험의 단계에서 이미 어떤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 명제 또는 이 명제의 부정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의 경우에는 다른 믿음과 달리 능동적인 능력의 작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은 동일한 능력이 발휘된 제시적인 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주체가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제시적인 태도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해주는 하위 인지 수준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적인 태도보다 낮은 수준의 태도 유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으로부터,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특정한 명제를 주장하는 동일한 유형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맥도웰의 정당화 사례를 보면 경험과 믿음은

동일한 명제를 내용으로 가질 수 있다. 맥도웰은 믿음과 경험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

[지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 경험에 귀속시키는 내용은 설명되는 믿음의 내용과 동일하다. 경험의 내용은 지각적 믿음을 결론으로 하는 추론의 전제가 아니다. (McDowell 2009: 131)

그러므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동일한 태도이며, 동일한 개념적 내용을 가지므로, 개념주의에 따를 경우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지각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경험주의 논제는 반박된다.

## 4.2 가능한 재반박과 답변: ‘seeing’과 ‘seeing as O’의 구분 및 비-진리적 지각 사례<sup>21</sup>

지각경험은 주체에게 지각 대상을 단지 임의의 사물로만 제시하지만, 믿음은 지각 대상을 O로서 제시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예컨대 지각경험이 사물을 단지 “보는” 것이며 이때 대상은 단지 ‘thing’이나 ‘this’, ‘that’, 조금 더 발전된 표현으로서 ‘shape’로 표현된다면, 지각적 믿음은 사물을 “특정한 대상 O로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O는 ‘thing’이나 ‘this’, ‘that’ 나아가 ‘shape’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념이다. 즉, 지각경험은 “단순한 봄(seeing)”으로, 지각적 믿음은 더

---

<sup>21</sup> 이 절에서 고려하고 있는 ‘seeing’과 ‘seeing as O’의 구분을 통한 비판과 비진실된 지각을 통한 비판은 강진호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 것들이다.

높은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봄(seeing as O)”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ere is a shape like a triangle>라는 지각적 믿음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자. 개념주의에 따르면 개념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이 지각적 믿음 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박에 따르면 지각경험은 <There is a shape>라는 내용을 갖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체가 <There is a shape>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따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There is a shape>라고 믿을 것이다.

또, 이 반박에 따라 <There is a shape like a triangle>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There is a shape> 말고도 다른 전제가 필요하다. 가령 (E1) <There is a shape>; (E2) <the shape has three edges>; (D) <triangle is a shape with three edges>과 같은 전제들이 있어야 (B) <There is a shape like a triangle>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E1), (E2)는 경험내용인 동시에 믿음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체에게는 (E2)처럼 삼각형의 정의와 관련된 경험이 (E1)에 추가로 주어져야 한다. 즉, 이러한 반박의 핵심은 믿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 내용을 구성할 때와 달리 특정한 개념 O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는데, O가 포함된 믿음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경험내용도 O 또는 O의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경험내용과 믿음 내용은 단지 표현상의 차이(예컨대 ‘There is a shape with three edges’와 ‘There is a triangle’) 밖에는 갖지 못하며, 명제와 태도 수준에서는 여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반박으로서 윌러-라이어 착시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두 선분의 길이가 다르다고 경험하면서도 두 선분의 길이는 사실

서로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환각이나 환상을 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과 경험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착시 상황에서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주체의 믿음은 과거의 경험 및 그로부터 얻은 믿음들로부터의 추론을 통해 갖게 된 것이다. 가령 필러-라이어 착시를 처음 본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두 선분의 길이가 다르다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 선분의 길이가 다르다고도 믿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두 선분의 길이가 실제로는 같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입체공간에 대한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알게 된다. 그러면 착시 상황에서 주체가 갖게 되는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믿음은 지각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지각적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추론적인 믿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비-진리적인 경험과 믿음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신기루 사례를 다시 끌어오자. 주체는 오아시스를 보지만, 오아시스는 사실 없다고 믿을 수 있다. 이 때 오아시스가 없다는 주체의 믿음은 오아시스에 대한 지각경험으로부터 정당화되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막에 대해 주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 4.3 지각적 믿음에 대한 내재주의적 정당화와 내용 외재주의 간의 모순

개념주의는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고수한다. 맥도웰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재주의적으로(individualistically) 결정될 수 있는 심성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맥도웰에 따르면, 심성 내용은 항상 외부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 심성 내용도 다르다. 한편, 개념주의는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와 가깝다. 지각적 믿음이 지각경험으로부터 정당화될 때, 주체는 정당화의 근거인 지각경험을 반성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적 측면과 심성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개념주의의 주장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 장에서는 개념주의가 부딪히는 이 딜레마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스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쌍둥이지구로 옮겨졌다고 가정해보자. 쌍둥이지구에서 ‘물’은  $H_2O$  분자가 아니라 XYZ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 물\*를 가리킨다. 하지만 쌍둥이지구의 물\*도 거시적인 성질은 지구의 물과 동일하다. 오스카는 쌍둥이지구에서 앞에 놓여있는 컵에 담긴 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믿는다.

(P) 이 컵 안에 든 물은 투명하다.

오스카가 이 때 사용한 <물> 개념은 오스카가 지구에서 배운 것이다. 오스카는 지구에서 배운 개념적 능력을 사용하여  $H_2O$  대신 XYZ에 대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

개념주의에 따라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카는 지각경험 P를 근거로 지각적 믿음 P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P는 오스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스카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에서 P를 정당화하는 추론과 쌍둥이지구에서 P를 정당화하는 추론은 다르지 않다. 물과 물\*에 대한 경험이 동일한 유형의 경험으로 오스카에게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에서 오스카가 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내용과 쌍둥이지구에서 오스카가 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내용은 다르다. 전자는 H<sub>2</sub>O에 관한 것이지만, 후자는 XYZ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스카가 지구에 있을 때와 쌍둥이지구에 있을 때 오스카의 믿음 정당화 과정을 이루는 명제들은 각각 다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개념주의의 주장에 따를 경우, 주체는 자신의 지각적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신의 관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기인한다.

믿음은 경험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자격(entitlement)의 측면에서 알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체가 습득하는가와 관계없이 경험을 하는 것은 믿음에 합리적인 자격[정당화]을 구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합리성이 경험을 할 때에도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McDowell 2009: 131)

나는 개념적 능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규약을 따르는 것으로 사용한다: (적절한 의미에서) 개념적인 능력은 본질적으로 그 능력을 가진 자의 (이유에 대한 반응성으로서의) 합리성에 속한다. (McDowell 2009: 129-130)

(...) 이유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함축한다. (McDowell 2009: 132)

위의 인용문들을 종합해보자. 주체가 어떤 지각적 믿음을 갖는 것은 그가 가진 합리성 및 개념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합리성은 이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므로, 주체는 믿음의 이유, 즉 정당화자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너무

순간적으로 형성되어 무의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이나 지각적 믿음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사후에 주체는 믿음의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명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제시한 상황에서 해석자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오스카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 오스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구에서 오스카의 정당화 추론과 쌍둥이지구에서 오스카의 정당화 추론은 같다. 다시 말해서, 두 추론을 각각 구성하는 명제들은 동일한 것으로 오스카의 관점에 나타난다. 그러면 두 추론을 구성하는 명제들은 오스카가 지구에 있을 때와 쌍둥이지구에 있을 때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심성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스카가 가지고 있는 심성 내용은 내재주의적인(individualistic) 내용이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스카가 가지고 있는 심성 내용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념들뿐만 아니라 지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개별화되므로, 동일한 개념을 사용했다라도 오스카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심성 내용과 쌍둥이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심성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입장을 따를 경우, 오스카가 지구에서 했던 정당화 추론과 오스카가 쌍둥이지구에서 하고 있는 정당화 추론은 다르다. 그리고 개념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오스카는 자신의 지각적 믿음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오스카 자신의 일인칭적 관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오스카는 지구에서의 정당화 추론과 쌍둥이지구에서의 정당화 추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사고 실험에서 오스카는 두 정당화 추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컨대, 개념주의는 오스카가 자신의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심성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개념주의는 두 경우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 4.4 가능한 재반박과 답변: 정당화에 대한 투명성 거부

앞서 제시한 비판은 개념주의가 정당화의 투명성과 심성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개념주의에 따르면 경험이 믿음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주체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로서, 정당화는 반드시 주체에게 투명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 역시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지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성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 역시 개념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지각경험의 내용을 이루는 개념은 항상 외부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므로, 개념적인 심성 내용은 외재주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서, 맥도웰은 정당화가 주체에게 투명하게 알려질 필요가 없다고 응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3에서 맥도웰의 선언주의에 대한 헉의 비판을 다룬 바 있다. 헉은 맥도웰의 선언주의를 따를 경우 지각주체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각적 믿음에 대한 자기지식을 일차적인 심성 내용의 진리치를 안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맥도웰을 따르더라도 심성 내용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지식에 대한 믿음은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맥도웰은 자기지식의 오류가능성을 받아들이므로, 심성 내용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형성된 자기지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논변을 정당화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지각경험으로부터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추론에 대한 주체의 자기지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반박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념주의에 따르면 정당화는 주체의 합리적인 사고 및 판단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체가 자신의 정당화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면, 정당화는 주체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지과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정당화를 통해 주체의 합리성을 보여준다는 애초의 목표는 벗어나게 된다.

또한 주체가 자신의 정당화 과정에 대해 틀릴 수 있다면, 설사 JT를 받아들이더라도 주체는 자신의 정당화가 믿음 내용의 사실적 참을 함축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는 곧 정당화와 참 사이에 다시 거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딜레마에 대해서, 맥도웰은 이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물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과 달리 맥도웰은 자연종인 호랑이의 사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McDowell 2008: 93-94)

이 [쌍둥이지구 사고실험] 사례들은 외재주의와 자기지식의 일관성에 대한 진정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는다. (...) [쌍둥이지구에는 호랑이가 없으므로 주체는 호랑이에 대한 사고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례에서 주체가 호랑이 생각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체가 호랑이가 있는 지구에서 호랑이를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쌍둥이지구로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왜 주체는 호랑이를 생각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 주체가 쌍둥이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주체가 ‘호랑이’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으로부터, 주체가 자신이 호랑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주체는 자신이 지구에서 습득한 개념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호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은 주체 자신의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manifestation)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아도 알려질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자기지식과 [주체의 표현을 통해서 알려지는] 타인-지식(other-knowledge)의 비대칭성은 보존된다. 이 주체가 결여하고 있는 지식과는 무관하다.

필자가 보기에, 쌍둥이지구 사고실험에 대한 맥도웰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오스카는 쌍둥이지구 실험에 대해서도 몰랐고, 쌍둥이지구에서 자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쌍둥이지구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또 쌍둥이지구에 적합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스카가 쌍둥이지구에서 자랐거나 쌍둥이지구 실험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스카는 자신이 ‘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지구와 쌍둥이지구에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른다. 아마 앞서 제시한 상황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정당화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수 있다. 자신이 쌍둥이지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오스카가 모르고 있다고 해도 자기지식을 갖는 데에는 그다지 치명적인 것이 아니며, 여전히 오스카는 ‘물’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반박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 오스카가 쌍둥이지구에서도 여전히 알고 있는 ‘물’ 개념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일종의 내재주의적 내용이다. 오스카가 지구와 쌍둥이지구에서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오스카가 자신이 쌍둥이지구에 있을 가능성을 모른다고 해서 오스카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오스카가 어떤 물리적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심성 내용이 외적 환경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는 외재주의적인 주장은 약화된다.

또 다른 가능한 비판은 정당화와 관련된 심성 내용만 내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반박을 따를 경우 사실상 내재주의적으로 결정되는 심성 내용의 범위를 크게 늘려버리고 만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들 중 상당수는 경험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경험은 믿음을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반박을 따르다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많은 지각경험의 내용들이 내재주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전면적인 내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고수하는 개념주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특히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재반박은 경험의 내용이 주체의 내적 상태 및 속성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외부 환경과 단절된 자아를 옹호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각경험에 대한 개념주의를 맥도웰의 주축으로, 브루어를 보조축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주장이 비정합적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맥도웰과 브루어는 개념을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으로 보는 에반스의 개념 이론을 수용한다. 다만 개념주의자들은 에반스와 달리 개념을 주체가 지각경험 이전에 독립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각경험의 맥락에서 습득되는 지시사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킨다. 개념주의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지각경험을 완전하게 특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각경험이 개념으로 특성화될 수 있을 때에만 지각경험은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개념주의의 주장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먼저, 개념주의의 명시적인 주장에 따르면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은 동일한 명제를 내용으로 가질 수 있다. 여기에 필자는 지각적 믿음과 지각경험이 모두 제시적인 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지각적 믿음은 지각경험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형성되므로, 지각경험을 갖는 것은 곧 지각적 믿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날카롭게 구분될 수 없다. 그런데 지각적 믿음이 지각경험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화되는 지각적 믿음과 정당화자인 지각경험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주의는 지각적 믿음이 지각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을 포기하거나 개념주의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또, 개념주의는 내용에 대한 외재주의를 취하는 동시에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개념주의 안에서 조화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일전에 핵이 자기지식의 사례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맥도웰은 선언주의나 자기지식의 불투명성을 통해서 두 논제를 조화시키거나 자기지식의 문제 자체를 사이비 문제로 전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며, 맥도웰은 심성 내용에 대한 내재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약화시켜 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당화에 대해서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 역시 개념주의의 기존 주장들과 잘 맞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맥도웰과 브루어의 개념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논변이 가진 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는 심상을 통해 사고나 판단과정을 설명하려는 입장에 우호적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천적 삼단 논법이나 지각경험에 대한 주체의 사고과정 등은 심상간의 일종의 연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맥도웰이나 브루어식 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장래의 논의는 비개념주의 또는 다른 개념 규정에 따른 개념주의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영건. 2012.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과 맥도웰”. 《철학논집》 제28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63-86쪽.

이정모 외 15인. 2013. 《인지심리학》. 학지사.

이풍실. 2010. “비개념적 내용과 순환성 논증”. 《철학연구》 제88호. 철학연구회. 259-281쪽.

\_\_\_\_\_. 2011. “경험주의와 비개념주의: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 지각경험은 지각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가?” 《철학연구》 제94호. 철학연구회. 193-234쪽.

Bermúdez, J. L. 2007. “What Is at Stake in the Debate about Nonconceptual Content?” *Philosophical Perspectives* 21(1): 55–72.

\_\_\_\_\_. 1995. “Nonconceptual Content: From Perceptual Experience to Subpersonal Computational States.” *Mind and Language* 10: 333–369.

\_\_\_\_\_ and Cahen, A. "Nonconceptual Mental Conte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1 Edition). E. N. Zalta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2/entries/content-nonconceptual/>)

Brandom, R. 1995. “Perception and Rational Constraint: McDowell's "Mind and World".” *Philosophical Issues* 7: 241–259.

\_\_\_\_\_. 2001. *Articulating Reas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wer, B. 1999. *Perception and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Perceptual Experience Has Conceptual Content"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E. Sosa and M. Steup (eds.). Blackwell. 217-230.
- Byrne, A. 2005. "Perception and Conceptual Content."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E. Sosa and M. Steup (eds.). Blackwell. 231-250.
- \_\_\_\_\_ and Logue, H. 2008. "Either/or" in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A. Haddock and F. Macpher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314-319.
- \_\_\_\_\_. 2009. "Introduction" in *Disjunctivism: Contemporary Readings*. A. Byrne and H. Logue (eds.). MIT Press.
- Campbell, J. 1999. "Immunity to Error through Misidentification and the Meaning of a Referring Term." *Philosophical Topics* 26(1&2): 89-104.
- Crane, T. "The Problem of Percep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1/entries/perception-problem/>)
- Crowther, T. 2006. "Two Conceptions of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Erkenntnis* 65: 245-276.
- Dretske, F. 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MIT Press.
- Evans, G. 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Fodor, J. 1987. *Psychosemantics: The Problem of Meaning in the Philosophy of*

*Mind*. MIT Press.

Heck, R. 2000.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pace of Reasons." *Philosophical Review* 109: 483–523.

\_\_\_\_\_, 2007. "Are There Different Kinds of Content?" in *Contemporary Debates in the Philosophy of Mind*. J. Cohen and B. McLaughlin (eds.). Blackwell. 117-138.

Kelly, S. D. 2001. "Demonstrative Concepts and Experience." *Philosophical Review* 110(3): 397-420.

Macdonald, C. 2008. "Self-Knowledge and Inner Space" in C. Macdonald and G. Macdonald (eds.), *McDowell and His Critics*. Blackwell. 73-89.

Margolis, E. and Laurence, S. "Concep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4 Edition). Edward N. Zalta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4/entries/concepts/>)

McDowell, J. 1994a. *Mind and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94b.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Philosophical Quarterly* 44: 190–205.

\_\_\_\_\_. 1995a. "Reply to Gibson, Byrne, and Brandom." *Philosophical Issues* 7: 283–300.

\_\_\_\_\_. 1995b. "Knowledge and the Internal." *Philosophy and Phenomenal Research* 75: 877–893.

\_\_\_\_\_. 1998. "Intentionality as a Rel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471–

491.

\_\_\_\_\_. 2005. "Evans's Frege" *Thought, Reference, and Experience: Themes from the Philosophy of Gareth Evans*. (ed. Bermudez) Clarendon Press.

\_\_\_\_\_. 2009. "Conceptual Capacities in Perception." Reprinted in J. McDowell (Ed.), *Having the World in View: Essays on Kant, Hegel, and Sella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27-146.

\_\_\_\_\_. 2008a. "The Disjunctive Conception of Evidence as Material for a Transcendental Argument," in *Disjunctivism: Perception, Action, Knowledge*. A. Haddock and F. Macpher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376–389.

\_\_\_\_\_. 2008b. "Response" in *McDowell and His Critics*. C. Macdonald and G. Macdonald (eds.). Blackwell. 89-94.

\_\_\_\_\_. 2013. "Perceptual Experience: Both Relational and Contentful."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1(1): 144–157.

Moretti, L. and Piazza, T. "Transmission of Justification and Warra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3 Edition). Edward N. Zalta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3/entries/transmission-justification-warrant/>)

Peacocke, C. 1992. *A Study of Concepts*. MIT Press.

\_\_\_\_\_. 2001. "Does Perception Have a Nonconceptual Content?" *Journal of Philosophy* 98: 239–264.

Prinz, J. 2004. *Furnishing the Mind*. MIT Press.

Soteriou, M. "The Disjunctive Theory of Percep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0 Edition). Edward N. Zalta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0/entries/perception-disjunctive/>)

Speaks, J. 2005. "Is There a Problem about Nonconceptual Content?" *The Philosophical Review* 114: 359-398.

Stalnaker, R. 1998. "What Might Nonconceptual Content Be?" in *Concepts*. E. Villanueva (ed.). Ridgeview.

Toribio, J., 2008. "State versus Content: The Unfair Trial of Perceptual Nonconceptualism." *Erkenntnis* 69(3): 351–361.

Wright, C. 2002. "(Anti-)Sceptics Simple and Subtle: G. E. Moore and John McDowel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5: 330–348.

## **Abstract**

# **A Critique of the Conceptualism on Perceptual Content**

Choi Jeemin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ubject's belief about the external world is justified by his perceptual experience. The justificatory relation between perceptual belief and the relevant experience can be clarified by ascribing content to each mental state. Especially, according to the conceptualism on perceptual content, the justification is controlled by the subject's rationality. The justification of perceptual belief by experience, therefore, has to be explained in the way that shed light on the subject's rationality. Conceptualists claim tha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not only the content of perceptual belief but also that of perceptual experience has to consist of concepts. This thesis criticizes conceptualism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ncepts by McDowell and Brewer. McDowell's writings are dealt mainly and Brewer's, which seem to develop McDowell's argument in a clearer way, are supplementary.

Although Evans argues that experience has nonconceptual content, conceptualists accept Evans' characterizations of concepts almost wholeheartedly. Evans says that concepts are a sort of capacity to think and make up the structure of mental content. Conceptualists agree with Evans so far. Evans asserts, however, a

subject has to learn relevant concepts before he experience certain mental state; otherwise the concepts cannot be used in characterizing the state. In addition, according to Evans, the subject must be able to use the concepts in different contexts once he learned them. Evans and conceptualists diverge on the last two issues. Because all the linguistic expressions that can be articulated correspond to concepts according to conceptualists, even demonstratives express concepts. Demonstrative concepts can be learned at the time of experience with the content containing the concepts. A demonstrative concept refers to different objects according to the context.

This thesis elucidates that the conceptualist stipulation of concepts has features of both state-view and content-view. According to the state-view on conceptualism, a perceptual state is conceptual if and only if the subject has all the concepts necessary to characterize the state. According to content-view, a perceptual state is conceptual if and only if there is a way to characterize the state with concepts no matter who the subject is.

Concerning the justification of perceptual belief, conceptualists' main issue is to avoid bald naturalism, the Myth of the Given, and coherentism. Bald naturalism cannot clarify the subjective character of experience. According to the Myth of the Given, experience cannot be in the scope of rationality. Perceptual belief can be justified without any external constraint under coherentism. This thesis elucidates that conceptualists must accept internalism about justification in order to avoid the three pitfalls.

Nevertheless, conceptualist explanation of the justification of perceptual belief runs into two difficulties. First, perceptual belief and experience cannot be distinguished. In other words, there is no way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what is justified and what justifies. Thus the justificatory relation between perceptual belief and experience cannot be established. Second, the internalism about justification

which conceptualists must accept is not compatible with the externalism about content which conceptualists usually suppose. This thesis draws the conclusion from the argument above that there are significant defects in conceptualism.

**Keywords:** perception, (perceptual) experience, belief, concept, justification, mental content, McDowell, Brewer, Evans

**Student Number:** 2012-20050